“풍부한 유동성을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끌어오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강 지 호 KDB산업은행 PF(프로젝트금융)본부장

최근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 금융 조달 과정에서 민간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도입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이다.

장기 지연되던 민자사업의 상당수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금융 조달을 완료했고, KIIP도 국내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톡톡히 역할을 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신성장 유망 분야, SOC 등에 대한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총 운용 규모 33조원 규모로 조성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조기 종료됐다.

KIIP은 민간 금융기관의 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 17개 기관이 14.5조원 규모로 조성한 예비 투자자 협의체로,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다수 SOC 사업의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KIIP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KIIP의 운용과 관리는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맡고 있다. 이에 강지호 산업은행 PF본부장을 만나 인프라 사업 재원으로서 KIIP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KIIP의 설립 목적,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펀드 출자자 및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KIIP은 Korea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tform의 약자로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의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에 연기금, 보험사, 은행 중 민간투자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17개사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조성되었습니다. KIIP의 주요 목적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채널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KIIP는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한 예비 투자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이 참여하여 KIIP을 만든 것입니다. KDB인프라에서 KIIP 운용 및 관리를 합니다. 산업은행은 금융 자문 및 주선을 통해 투자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KIIP 회원사에게 투자 여부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 여부를 타진하는 통로가 바로 '투자협의회'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금융 주선하려는 사업이 있으면 상세한 사업투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협의회를 통해 개별 회원사에게 전달합니다. 개별 회원사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협의회를 통해 개별 사업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선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 주선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금융기관은 KDB인프라가 만드는 펀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참여 의향이 아니라 투자확약서(LOC)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호, 2호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회원사는 실제 펀드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KIIP은 예비 투자자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펀드처럼 실제 참여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 의향 금액만 정해 놓고 있다가 실제 사업이 있을 때 개별 펀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KIIP은 많은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platform)이 된다는 것입니다. MOU 체결시 회원사들의 참여 의향 금액은 특정 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참여 회원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연기금군, 보험군, 은행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군에서 3조 6,000억원, 삼성생명 · 교보생명 등 보험군에서 5조 6,000억원, 그리고 은행을 포함한 기타군에서 5조 3,000억원 등 총 17개사에서 14조 5,000억원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인프라 투자펀드 또는 기관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KIIP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 인프라 투자펀드는 금융기관의 실제 투자 참여 금액으로 약정하는 데 반해, KIIP은 그것 자체로는 펀드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실제 참여 금액이 정해졌을 때 개별 펀드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이 블라인드 펀드와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해 개별 회원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펀드에서 자유롭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입장에서 참여의 의무감은 없지만, 투자협의회를 통해 시장에 나오는 민간투자사업을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이후 투자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2015년 11월에 조성한 이후로 KIIP을 통해 2016년 3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금융 주선을 시작으로 총 3건, 2조 1,348억원의 투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도 KIIP을 통해 주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민간 조달액은 8,200억원이며 KIIP 참여액은 4,100억원입니다. 또한, 제물포터널, 신분당선(용산~강남) 등의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KIIP을 주도하면서 기존 민간부문 투자자들과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란이 우려됩니다만….

KIIP의 아이디어는 2015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PIP(Pensions Infrastructure Platform)처럼 투자 사업을 발굴하여 연기금 및 금융기관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KIIP은 시장 정보에 자칫 늦을 수 있는 연기금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민간 보험사와 시중 은행의 참여가 열려 있고 실제로 참여 의향 금액이 7.1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KIIP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시장 마찰 없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외에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투자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심재생사업 등 공공성이 있고 대규모 민간 조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KDB가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면 KIIP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투자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MRG가 없고 실시협약 대비 수요가 부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공유 이익'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상의 교통량 혹은 물동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재무 투자자는 수익은 커녕 투자금을 손상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재조달 공유 이익 적용 배제를 통하여 기존 투자금의 조기 Exit와 신규 대체 자금 투입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Exit 자금은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PF시장에서 산업은행의 해외사업 활성화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은행은 2003년 해외 PF 업무를 취급한 이래 23개국, 70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71억 8,000만 달러의 금융 주선을 실행하였습니다. 1개 팀 4명으로 시작한 해외사업 조직이 올해까지 7개 팀 41명으로 확대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동반자이자 금융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의 선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터키 가지안텝 병원사업,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발전 · 칼젤 석탄화력발전사업, 캐나다 온타리오 태양광 · Bell River 풍력발전사업, 일본 홋카이도 태양광발전, 영국 해상 · 육상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24개 사업에 22억 달러를 금융 주선하였습니다. 아울러 LG상사, 수자원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한전,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수주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주, EPC, 운영사 등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산업은행이 금융 조달 측면에서 역량을 더해 한국형 패키지 PF사업 모델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PF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레드오션화하는 국내 PF시장에서 벗어나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 중남미 시장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열어나가고, 확대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발맞춰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을 위한 금융 서포터로서 금융 자문, 지분 투자, 대출 실행, 투자 회수 펀드 운용 등 One-stop 금융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END

대담 및 사진 : **이형우** 출판팀장, **인흥진** 연구원